

“ 개척교회에 힘을 실어줘야! ”

■ 이종윤 원로목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신다 하셨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심는 것과 물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므로 어느 시대나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를 바친다.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보이는 것이 교회 간판이 즐비한데 무슨 개척교회가 아직도 필요하냐고 말하는 이도 있다. 신학생 수가 범람하니 그들의 일터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도 있다.

민족 복음화 위해 개척교회 더 필요해
민족 복음화라는 대의는 크게 외치면서 현재 기성교회만으로 민족 전체를 담을 수 있을까? 5천만 인구를 신자화 했다 가정할 경우 한 교회에 500명 평균 성도를 섬긴다 하면 교회가 10만 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70%가 미자립교회여서 50명 미만의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다. 평균 50명 교인으로 5천만을 담으려면 교회가 100만 개는 있어야 한다.

잃어버린 양 없도록
현대사회에서 렌트문화가 확산되어 교회까지도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를 자손들이 섬기기보다 자기 편리한 교회를 찾아가 예배당을 빌려서(rent)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내 교회, 우리 교회 개념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잃어버리는 양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려면 몇 개의 대형교회만으로 모든 성도를 품을 수는 없다.

누가 성공한 목회자인가?
개척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 오늘의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도 부지기수다. 그러면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는 성공한 목사고 그렇지 못한 이는 실패자란 말인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천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심한 박해와 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공한 목회자고 바울은 실패자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종이 누구인가?
개척교회를 몇 군데 섬겨본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로 개척교회 목회자의 강대상 앞에 놓인 의자의 방식은 목회자의 눈물로 마를 날이 없어야 하고, 목회자의 발톱은 심방으로 빠져있기가 일쑤고, 머리와 허리는 하도 땅에 닿도록 숙이느라고 조 이삭처럼 굽어졌고, 다섯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만 명의 회중 앞에서 말씀 전하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 부목사도 전도사도 없으니 공예배 뿐 아니라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365일을 혼자 인도하고 교회당 청소 관리도 담임목사 몫이다. 회사는 나 혼자 다녀서 집에 오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목회자는 출퇴근 시간도 없이 24시간 365일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부가 교회만 생각하고 섬겨야 한다. 사모님도 자녀들까지도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분을 보이며 엎드려야 하고 성도들 접대 위해 손에 물마를 날이 없어야 한다. 예배당도 없는 교회는 상가 건물 전세로 들어가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예배당 옆의 사택은커녕 예배실도 없는 처지에서 목회자의 주거지도 예배처와의 거리는 상관없이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 오직 주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시 보게 되고 존경을 표하고 싶다.

개구리 울챙이 시절 기억해야
안디옥교회는 개척 선교사를 파송할 때 B급 목사가 아닌 자신들의 담임 격인 바나바와 대신학자 사울같은 최상급 목회자를 파송했다. 요즘은 성도들은 물론 젊은 목사님들조차 개척교회보다 규모 있는 교회를 선호하고, 섬기고 싶어 하지만 개척 사명을 받은 엘리트들이 환경 때문에 받은 사명이 축소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대형교회들은 자신의 개척기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2013년 10월 5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성도간 인사는 목례로 해 주시고, 8층 식당에서는 꼭 지정석을 지켜 주시되, 식사 중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 주심으로 우리의 예배와 교제가 더욱 평안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바랍니다.

한편, 12일(금)~13일(토)
청년부 수련회가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체험과 영적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807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두 가지 걱정 ”

■ 누가복음 12:13-21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걱정, 근심, 염려’라는 단어가 203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식 속에 걱정(10회), 근심(140회), 염려(51회)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10) 근심을 통해 자기 성찰과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심에서 근심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다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 걱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 인간의 본래적 탐심의 문제
한 사람이 부친의 유산 분배를 두고 형과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도 분배되도록 형에게 명령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은 공정과 준법을 앞세웠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이익을 탐하는 탐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과제는 가족들의 화목을 유지하고 선친의 유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 몫의 유산을 확보하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탐심으로부터 네 자신을 지켜라’는 뜻입니다.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몰락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습니다. 돈에 눈멀어 승승을 팠었던 가뭄 유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2. 나눔이 없는 이기심의 함정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어 매우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공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건축한 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 가시면 어찌되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는 모든 일을 ‘내가 했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내가 즐길 것들’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이웃에 대한 나눔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창고에 가득히 물건을 채웠다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랴고 하셨습니다. 창고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복음전하는 일을 위해 창고 문을 열 생각을 해야 합니다.

3. 염려의 함정
가진 자의 이기심이 삶의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 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AD70년 로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피신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긴급한 문제가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문제를 두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누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고난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정신이 구현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 안에서 평화와 기쁨,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오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안용근 목사	김혜언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노제현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98:4-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9(시 15)...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19(478)...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12:13-2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두 가지 걱정”...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82(49)...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동수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대상 16:8-9 인 도 자
 찬 송 200(235) 다 합 께
 기 도 소 훈 집사
 찬 송 263(197) 다 합 께
 성 경 왕상 1:1-1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야망의 시험” 설 교 자
 * 찬 송 438(495)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안용근 목사

기 도 ... I부: 이재숙2 권사 II부: 유미영 권사
 성 경 마 20:1-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은혜를 입은 자의 헌신”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화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 모 임

1. 경기당회 / 8월 14일(주일) 오전 8시 402호
2. 강학회 모임 / 8월 7일(주일) 오후 12시 30분 8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7.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세번째 세례식인 8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8월 2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교육 : 8월 14일(주일) 오후 1시 602호
- 세례 문답 : 8월 14일(주일) 오후 2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장 례

1. 故 임백생 성도(3교구 김명자 성도의 부군) / 8월5일(금) 별세, 8월8일(월) 천국환송예배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842명	437명	2,279명	407명	1,954명

🌳 2022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담당 교역자
청년부	8/12(금)-13(토)	아가페타운	언약백성으로 살아가기 (출 19:5-6)	안용근 목사

🌳 하나님의 저울

재어 보고 달아 보니 불합격이라는 선고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에게 떨어졌다. 한창 무르익고 있던 벨사살의 주홍이 깨져버리고 갑자기 공기가 굳어졌다. 난데없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바람벽에 기어가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벽 위에 글자가 쓰여졌기 때문도 아니었다. 글자 속에 담긴 내용이 날벼락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은 벨사살왕의 사람됨과 그의 소행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끄럽게도 근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벨사살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안 될 사람이 있겠는가.

은총으로 살고 있는 주제에 심사 기준에 합격자나 된 것처럼 오만해 하지 말고 감지덕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격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